

“시민 안정 · 민생경제 보호 행정력 집중”

우범기 전주시장, 정책조정회의서 “불안정한 정국 속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 달라” 강조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혼란한 정국 속에서 시민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 시장은 사회가 불안정할 때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각



우범기 전주시장

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11일 전주시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불안정한 정국과 상관없이 전 공무원들은 정위치에서 맡은바 업무를 소홀함 없이 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우 시장은 “전주시 모든 공무원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면서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온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일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 불안 해소 및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총괄 사무를 맡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현재 6팀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6개 팀은 △현안 사업 △경제안정 △서민생활 지원 △재난안전 △비상진료 △가족지원팀 대응 등으로 구분해 불안한 정국 상황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업무를 챙기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지원팀은 불안한 정국

상황에서 외면당하거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팀은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제설, 한파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민생안정 대책반을 정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면서 시민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옥기 기자

‘후백제 도읍지 전주’ 발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가치 재조명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가장 국적인 도시를 걷다’의 14번째 시리즈로 ‘후백제 도읍지 전주’ (지은 이 최범호, 펴낸 곳 신아출판사, 판매부)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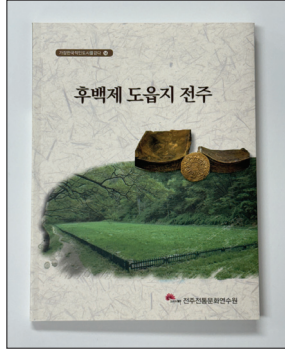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사상 등을 알리고, 우리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걷다’ 도서를 발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수원은 지난 2012년 ‘전주동헌’을 시작으로 지난해 ‘유일본 전주사고 조선왕조실록과 어진을 지킨 전주 전복인’에 이르기까지 총 13권의 도서를 출판했다.

이번 책은 후백제 도읍지로서 전주의 가치를 재조명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견훤은 892년 무진주에서 차립해 왕을 자칭하고 900년에 전주로 도읍을 옮긴 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옛 백제지역과 신라지역에서 맹위를 떨쳤다.

이에 이 책에서는 후백제 도성과 전주의 위치를 통해 전주가 전북 지역의 지방 거점도시로 부각된 이유를 살피고, 후백제의 성장기와 전성기를 통해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서술했다.

또한 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주의 역사 유적은 조선시대와 근대시대의 유적을 중심으로 조성된 만큼,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후백제 유적을 복원하고 이를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지현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장은 “이번 14번째 시리즈 발간을 통해 전주가 후백제 도읍지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임을 재조명하고, 전통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겨울철 예방접종으로 건강 지키세요”

전주시보건소, 인플루엔자 · 코로나19 · 폐렴구균 등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노인과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최근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유행 시기(11월~4월) 및

한해 형성 기간(약 2주) 등을 고려해 10월에서 12월 중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예방접종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의 경우 인플루엔자는 70~90%, 코로나19는 60~70%, 폐렴구균은 50~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개인 면역,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백신의 경우 단순히 감염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중증 및 사망에 이르는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노인과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과 6개월~13세 어린이(6개월~13세), 임신부에 대해 무료 접종을 시행하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063-281-6251)와 덕진보건소(063-250-3913),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동절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과 유행 확산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동서학동 자생단체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소중한 추억 나누며 건강하고 밝은 새해 기원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나희)는 동서학동 주민센터(동장 정혜운)에서 ‘2024년 동서학동 자생단체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올 한 해 동서학동의 발전과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한 자생단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의 환한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동서학동 시의원 및 8개 자생단체 임원진과 회원들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2024 동서학동 자생단체 활동 영상 시청, 인사말, 축하, 주민화합 다과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나희 동서학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달려온 우리 동서학동 자생단체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동서학동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혜운 동서학동장은 “동서학동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다가오는 2025년 더 크게 도약하는 동서학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서학동 주민센터에서 ‘2024년 동서학동 자생단체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빠른물류, 저소득층 3가구에 연탄 1300장 기부

(유)빠른물류(대표 최병원, 서영태)는 11일,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주민센터(동장 정문구)를 찾아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3가구에 총 연탄 1,300장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겨울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한 것으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빠른물류의 임직원들 15여 명이 직접 연탄을 주민들에게 배달하며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최병원, 서영태 (유)빠른물류 대표는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문구 호성동장은 “기부된 연탄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